

프랑스 레알리즘 小説 考察

鄭 鳳 九*

目 次

- | | |
|------------------------|---------------------|
| I. 緒 論：現實과 眞實 | VI. 플로베르, 공쿠르의 성향 |
| II. 두 개의 見解 | VII. 레알리즘의 氣流와 그 衰頹 |
| III. 레알리즘과 寫實派 | VIII. 結 論 |
| IV. 샹플뢰리, 듀랑티의 레알리즘 理論 | IX. 관련 作家 作品 一覽表 |
| V. 寫實派 그룹의 작품 성격 | X. 참고 문헌 |

I. 緒 論：現實과 眞實

레알리즘(réalisme)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現實主義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接하는 日常生活의 現實과 거기에 主義를 덧붙인 現實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 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물음을 理由있는 것으로 設定할 때, 우리는 現實主義, 즉 레알리즘의 定義 내지는 字義에 대한 애매성을 느끼게 된다. 물론 레알리즘을 풀이하는 歷史的인 또는 文藝思潮의인 定義가 없는 바 아니지만, 그와 같은 풀이가 있다 해도 이 字義上的 애매성은 여전히 남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애매성의 모호한 概念을 벗겨보기 위해 現實과 眞實을 구분해 보기로 한다.

본래가 레알리즘의 根元을 文學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人生의 日常的인 眞實을 表現해 보려 한 要求」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레알리즘의 歷史는 프랑스 19세기 文學에서 비로소 싹튼 것이 아니며 이미 中世以來로 각세기 文學에 있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을 바탕에 깔고 생각해 볼 때, 프랑스 19세기 文學의 한 傾向으로서 特徵지워지는 레알리즘은, 우리가 말하는 一般概念의 現實과는 正確히 一致할 수 없는 것이다. 레알리즘을 寫實主義로 번역하여 명칭화한 東洋的인 事例도 그런 것과 상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人文大學 佛語佛文學科 教授

文學가 있어 온 이래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現實認識을 排除하지 못한다. 現實의 認識은 어떤 作品을 創造하는데 언제나 그 밑바닥에 깔리게 되는 자연스러운 現象이다. 때문에 우리가 새삼스럽게 레알리즘을 浮刻시킬 때, 그것은 通稱적인 現實이기 보다는, 좁은 의미의 그리고 한 時代의 流派로서 形成命名된 Réalisme-Ecole¹⁾을 指稱할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는 지금 視野를 19세기 후반 프랑스文學의 流派로서의 레알리즘으로 돌리고 그것이 表現하려고 한 眞實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생각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탐구는 동시에 現實에 대한 文學의 立場과 視角을 보다 더 명료케 하는 作業에도 얼마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알베르 티보테(Albert Thibaudet)는 그의 책에서 寫實主義小說(Roman réaliste)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小說화된 現實이었다고 분석하며 現實과 眞實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

〈물론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현실은 반드시 진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³⁾〉

現實과 眞實의 문제를 小說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티보테는 寫實小說(Roman réaliste)⁴⁾을 小說화된 現實로 규정하면서도 現實과 眞實이 반드시 서로간에 내포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니 여기에 바로 小說論乃至는 文學論이 있을 것이다.

文學史를 통해서 우리가 認識하는 現實의 座標은, 어느 時代에서나 느껴온 〈理想〉에 대치되는 〈現實〉이었을 것이고, 좀 더 理論적으로 정리하자면 「그것, 레알리즘은 어느 경우에도, 탁상의 發想으로 되는 文學때문에 소원해졌던 現實의 人間性을 찾아내려고 한 意思에 불과하다.⁵⁾」 그러므로 文學에서 레알리즘을 특수한 -isme으로 區分分立시키는 일은 文學底邊에 깔린 意思위에 보다 특이한 또하나의 意思를 따로히 設定하는 結果로 浮刻된다.

프랑스 19세기 레알리즘 文學을 이와같은 틀위에 놓고 다시 더 그것을 탐구하려는 것은, 그것을 單純히 歷史적인 事象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그 特色과 特徵을 밝혀 보고자 함이다.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탐구를 위하여 1850년대 프랑스 소설 중에서 레알리즘의 소설로 기억되는 작품들을 분석하며 특히 작품 내용의 현실성, 다시 말하여 「人生의 日常적인 眞實」과의 상관 관계를 추리하므로써 레알리즘의 眞實을 밝혀볼 것이다.

1) 現實流派로 번역됨, 우리는 흔히 이것을 寫實派로 명칭지어 부름

2) Albert Thibaudet :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3) On sait d'ailleurs que réalité n'implique pas nécessairement vérité, - et réciproquement. (p. 367)

4) 이것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現實小說〉이 된다.

5) Philippe Van Tieghem : Dictionnaire des Littératures t. 3, p. 3264,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8.

II. 두개의 見解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레알리즘의 語源은 現實이며, 거기에 이즘(isme)을 덧붙인 現實主義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생활주변의 사실과 그 語義上으로 區分이 모호함을 면치 못한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의 초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혀보기 위해, 이번에는 文學史家의 눈을 빌려본다. 여기서는 THIBAUBET⁶⁾와 G. LANSON⁷⁾, P. TUFFRAU⁸⁾의 文學史를 텍스트로 삼겠다. 다음의 책이다.

- (1)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De 1789 À nos jours
par Albert Thibaudet.
- (2) G. Lanson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remaniée et complétée pour la période 1850~1950
par Paul Tuffrau.

그런데 이 두 책에서 우리는 주목할만한 차이점을 발견한다. 즉 (1)에서는 Le réalisme의 항목을 설정하고 상당 지면을 할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2)에서는 réalisme에 대한 언급이 전연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1)에서는 제 3부 <1850년의 세대>(La Génération de 1850) IX章에 Le réalisme 항목을 두었고 I~VIII章까지 사이 IX章 외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이론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2)에서는 제 6부 제 3권이 <自然主義(1850~1890)> (Le Naturalisme(1850~1890))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시 더 그 내용면으로 살펴 보더라도 (2)의 경우에는 제 V 장 小説에서 플로베르(Flaubert), 에밀 졸라(Émile Zola), 에드몽 공쿠우르, 쥘르 공쿠우르(Edmon et Jules de Goncourt), 알퐁스 도오테(Alphonse Daudet), 귀 드 모파상(Guy de Maupassant)⁹⁾ 등을 차례로 논하면서 자연주의 작가로 처리하고 있다. 이 속에서 現實主義의 용어를 쓴 곳은 단지 공쿠우르를 論하면서 서술한 다음 대목뿐이다.

마지막으로, 《제르미니·라세르토》¹⁰⁾속에는, 범속한 사물과 통속적인 <환경>은 現實主義的 예술에 특유한 영역이다. 소재 속에 비속한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작품속에는 더 많은 現實이 있다고하는 충분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¹¹⁾

…enfin, dans *Germinie Lacerteux*, le principe si contes table que les faits vulgaires et les *milieux*

6) Albert Thibaudet (1874~1936), 文學批評家이며 文學史家

7) Gustave Lanson (1857~1934) 文學史家 그리고 文學批評家

8) Paul Tuffrau, Polytechnique校의 교수, 文學史家, 文學批評家

9) 이상에 列擧한 作家는 뒤에 관련 作家群一覽에 明細 註, 參照.

10) Germinie Lacerteau, Goncourt 형제의 소설.

11) 앞에 例示한 (2)의 책 p. 1,087.

populaires sont le propre domaine de l'art réaliste, qu'il y a plus de réalité dans l'œuvre quand il y a plus de grossièreté dans la matière.

여기에 서술된 réaliste, réalité의 표현을 기억해 두면서 특히 그 〈現實主義的〉 또는 〈現實〉의 표현으로 서술된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1)의 책에서 활발히 논의된 레알리즘이 어째서 (2)의 책에서는 自然主義속에 포함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티보데가 레알리즘으로 처리한 1850년의 세대를, 어째서 랑송, 튀프로오는 자연주의(Naturalisme)으로 규정하였는가. 티보데의 책에서는 플로베르와 공쿠우르 형제들을 레알리즘 작가로 분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랑송, 튀프로오의 文學史 책에서 누락되어 있는 뮈르제(Murger), 샹플뢰리(Champfleury), 뒤랑티(Duranty)를 초기 레알리즘의 주요작가로 꼽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랑송, 튀프로오의 文學史가 무시하고 있는 레알리즘의 위치를 생각하며, 티보데의 文學史에서 레알리즘으로 분류된 작가들이 어째서 자연주의 작가로 처리되었던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앞에서 제기한 레알리즘의 語義的인 애매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도 생각하게 된다.

이 문제를, 보다 더 복잡한 애매 모호성에서 건지기 위해 우리는 단순한 도식의 등식으로 정리해 본다. 즉 레알리즘은 자연주의와 동일한 것이다. 적으나마 랑송, 튀프로오의 文學史에서는 이 등식이 성립된다.

문학 평론가들의 여러가지 의견 중에서 이와 같은 등식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이론을 찾아 보자. 피에르·코니(Pierre Cogy)는 「레알리즘과 내추럴리즘」은 계속된 관계에 있고 先行하는 것을 되풀이 한다는 점에서는 同一내용을 표현한다고 하였다.¹²⁾ 또한 그와 같은 이론을 뒷받침 하는 조건으로 레알리즘의 流派를 이룩한 초기 레알리즘운동의 주창자들이 모두 다 군소작가이었다는 점을 들고있다. 그러므로 레알리즘은 결국 내추럴리즘의 밀바탕을 형성하는 역할로 밖에 인정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文學史的인 처리방법으로는 내추럴리즘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랑송, 튀프로오의 文學史에서 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권위적인 文庫本 《Que sais-je?》에서도 엿볼 수 있다. 文藝思潮上의 거의 모든 部門을 총망라 하고 있는 이 문고에는 《내추럴리즘》(La Naturalisme)¹³⁾이 수록되어 있을뿐, 《레알리즘》은 없다. 즉 《레알리즘》으로 분류되는 작가 작품들이 다 함께 《내추럴리즘》에 포함되어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Que sais-je? 文庫에서는 Réalisme의 比重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가 Le Naturalisme을 검토하며 追跡하기로 한다.

12) Pierre Cogy : Le Naturalisme, pp. 6~7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 1976.

13) 《Que sais je ? 》N°604, Pierre Cogy : 《Le Naturalisme》

III. 레알리즘과 寫實派

Que sais-je? 文庫版 Le Naturalisme에서 Pierre Cogny는 Réalisme을 Naturalisme의 초기과정으로 보면서, 寫實派의 位置를 명확히 하고 있다. 즉 Réalisme의 主唱者 샹플뢰리(Champfleury)와 뒤랑티(Duranty)¹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샹플뢰리는 그 자신, 자기의 役割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레알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과도적인 말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승리자를 영예스러운 勝利冠으로 장식할 수도 있지만, 시체를 장식하게 될런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¹⁵⁾

Le mot réalisme, un mot de transition qui ne durera guère plus de trente ans, est un de ces termes équivoques qui se prêtent à toutes sortes d'emplois et peuvent servir à la fois de couronne de laurier ou de couronne de chou.(Champfleury, id.)¹⁶⁾

또한 그가 인용한 René Dumesnil¹⁷⁾의 글을 보아도 샹플뢰리의 文學史的인 位置가 짐작되어 Réalisme이 存續되는 思潮의 比重을 짐작할만 하다.

샹플뢰리와 같은 작가들은, 이미, 역사가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밖에는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文學史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소멸해 버렸지만 아직도 博物誌속에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化石과 같은 것이다.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여러가지 일에 조금도 남득이 안갈 것이다...((寫實主義)pp. 23~24)

뒤랑티에 관한 논급 역시 마찬가지이다. 「샹플뢰리의 친구이었고, 《제르미날》¹⁸⁾의 작자의 친구이기도 하였던 뒤랑티는 레알리즘의 蠟燭을 自然主義에게 넘겨주는 것을 진정한 사명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사람 덕분에, 권력자들의 조인은 충돌도 없이 自尊心도 상처받지 않고 행하여졌다. 샹플뢰리와 마찬가지로, 겸허한 그는 결국에는 그들의 理想을 자기 것으로써 취택한 졸라(Zola)의 우월에 대하여 머리를 숙이고, 비굴한 점이 조금도 없는, 졸라와의 편지왕래 속에서, 진실어린 겸양의

14) 관련작가군 一覽참조.

15) Pierre Cogny 《Le Naturalisme》 p. 26.

Champfleury lui-même, du reste, n'ignorait pas que son rôle serait éphémère et il avoue que le mot de réalisme n'est qu'un mot de transition, qui peut aussi bien couronner un vainqueur qu'un cadavre.

16) Pierre Cogny 앞의 책 p. 27.

17) 위의 책 p. 26에 引用된 評者

18) Germinal, Zola의 소설, Les Rougon-Macquart 총서 제 13 권에 해당함 1885년刊.

태도를 취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考證해 보더라도 상플뢰리와 듀랑티가 主唱한 레알리즘과, 졸라가 내세운 내추럴리즘의 관계는 兄弟인 관계라 할까 동일한 目的理想으로 묶여지는 것이라 할까, 그런 관계로 간주된다. 말하자면 레알리즘은 自然主義의 여명기에 있어서 뒤이어 올 그 自然主義의 터를 닦아놓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플뢰리건 듀랑티건 그들이 발판으로 삼고 성장한 토양은 Romantisme이 분명한데, 그 로만티즘에서 離脱하고 自己들의 流派를 형성하였건만 그 깃발을 드높이 들고 지키지 않고 뒷 사람에게 미소를 지었다는 점이다. 어쩌서 그들은 自己들이 창시한 isme을 내세우고 싸우지 않았을까? 아니 기존 思潮에 그토록 과감하였던 자기 주장이었는데 뒤이어 오는 世代 앞에선 또 어쩌서 그렇게 無力하였을까.

우리는 여기서 쉽사리 두 가지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그 하나는 자기들이 내세운 개혁이 하나도 새롭지 않아서 동조하는 후배나 徒黨들이 없었다는 조건, 또 하나는 자기들이 내세운 이념이 보다 더 鮮明하게 뒷받침되는 더 큰 勢力 앞에 퇴색되었다는 사정조건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리판단은 後世史家들의 냉정한 비판 정리 속에서 자연도태 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레알리즘은 文學史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다. 그것은 엄연히 존재하였던 한 時代 형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레알리즘이 外形的인 형태를 갖추고 나온 背景을 살펴보기로 한다. 文學雜誌《레알리즘》이 듀랑티의 손으로 창간된 것은 1856년 7월 10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상플뢰리와 함께 두번째 初號를 낸 것이 같은 해 11월 15일이었다. 이 잡지는 그 후 1857년 4~5월 합병호까지 7호가 발행되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주로 글을 쓰며 레알리즘의 定義를 내린 것은 듀랑티였다.

雜誌《레알리즘》이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책이 상플뢰리의 저서 《레알리즘》이다. 이 책 序文에서 상플뢰리는 레알리즘의 성격 같은 것을 밝히고 있어서 또한 참고 거리가 될 수 있다.

이 보다 앞서 레알리즘 운동은 저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있는 화가 쿠르베(Courbet)²⁰⁾에서 불붙기

19) Pierre Cogy 앞의 책 p. 27.

Ami à la fois de Champfleury et de l'auteur de Germinal, Duranty paraît avoir eu pour essentielle mission de transmettre le flambeau du réalisme au naturalisme et, grâce à lui, la passation des pouvoirs s'opéra sans heurts ni souffrances d'amour-propre. Aussi modeste que Champfleury, il s'incline devant la supériorité de Zola qui, après tout, reprenait à son compte leurs idéaux et, dans sa correspondance avec lui, exempte de toute bassesse, il adopte le ton de la cordiale déférence.

20) Gustave Courbet (1819~1877) 寫實主義 화가.

시작한다. 쿠르베의 아트리에와, 특히 그들이 단골로 모이던 음식점 la brasserie에서 Réalisme-Ecole (寫實派)는 형성되었고 이른바 《放浪藝術家》적인 동아리가 형성된 것이다.

이상으로 사실주의와 寫實派들의 윤곽이 밝혀졌거니와 그들 스스로가 레알리즘을 主唱하였으며 자기들을 2次的인 역할에 두었던 일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의 얼마쯤은 그 원인이 réalisme이라고 하는 言語的인 意味의 一般性에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은 그들 스스로가 밝힌 理論에서 그것을 찾기로 하겠다.

IV. 샹플뢰리, 듀랑티의 레알리즘理論

지금까지의 論及에서 레알리즘이 그 語義的인 意味表現의 理由로 하여 이미 옛날부터 있어왔고 그것은 現實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활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藝術思潮의 項目으로서 提示하기가 모호하다는 點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또한 自然主義와의 상관관계도 얼마쯤은 확실해 졌다. 따라서 지금은 레알리즘의 思潮가 文藝思想에 登場한 과정을 더듬어 보겠다.

레알리즘이라는 말이 思潮로서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대체로 1848年에서 1850年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모임으로서의 流派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사이의 流派들은 좀더 앞선 뮈르제(Murger)²¹⁾에서 일기 시작된 〈放浪藝術家 la Bohème〉의 무리에서 출발하며 그와 같은 藝術家 氣質이 變化하여 샹플뢰리, 듀랑티가 목표한 作品對象으로 現實描寫개념이 옮겨간 것이다.

그와 같은 주변환경에서 文字化한 réalisme의 理論乃至는 定義를 발췌해 보기로 한다. 前記한 잡지 《레알리즘》²²⁾의 두번째 初号에서 듀랑티는 레알리즘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Réalisme이란 속임수 氣質과 나태에 대항하는 眞摯性과 精進의 이론적 항의이다. 이 항의는 現 재라고 하는 명확한 시점에 있어서는,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진리를 사랑하는 基本으로 向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써, 그 自體, 새로운 사상이다. 오늘날의 文學은 스퀴데리, 마리니, 랑부이에館의 유산을 다시 이어받아, 체하고, 우습관스럽고, 古風스러운 처녀 연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文學에 있어서도, 造形藝術에 있어서도, 과학에 있어서도, 모든 方面에 있어서, 진리의 이름에 의해서 크나큰 투쟁을 계속하여야만 한다. 그것이 사람들의 정신에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될 唯一한 지렛대이다.

어느 시기고, 예술에 있어서는 본능에 의하거나, 사색에 의하거나, 진리가 追求되어 왔다. 진리와 상식과는 약간의 관련이 있다. 많은 작가들은 진리를 그들의 책에 쌓아올렸다. 그와 마찬가지로, 레알리즘에 반대를 외치는 사람도, 그런 줄도 모르고서, 대단히 레알리즘 작가를 칭찬하고 있다.

21) Henri Murger, 관련작가群一覽 참조.

22) 이것을 新聞으로 보는 評者도 있으나 月刊도 아니고 定期刊行도 아니고 雜誌성격으로도 확정키 어려움.

이 말은 본래 실러(Schiller)에게 알맞는, 시대를 진지하게 그린 작가들은, 예술가로서도, 실천가로서도, 다른 작가보다 우수하고, 보다 강한 知性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일이, 작가의 재능을 상호간에 비교해 보고서 인식된 데서 레알리즘이라고 하는 教義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자들은 이 말을, 샹플뢰리씨와 쿠루베씨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으려 했다. 이 화가와 이 소설가는, 처음에는 예술과 문학의 동아리를 만드는 무리(群)와 사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거기를 떠나서, 다른 동아리들 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항상 자존심에 의하여 지탱되는 미움을 받게 되었다.

샹플뢰리씨와 쿠루베씨는 절대적으로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레알리즘의 이름이 자기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보고서 놀랐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그들 보다 이전 사람들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였을 뿐이었다. 프랑스에 있어서나, 영국에 있어서나, 독일에 있어서나, 소설과 繪畫가 만들어진 이래로 레알리스트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레알리즘은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보다 더 넓은 장소를 차지해야만 될 문제이다.

그것 (레알리즘)은 모든 사상을 포함하고, 그것들의 사상이 실천되는 한에 있어서 그것들 사상에 가치를 부여한다. 그것 (레알리즘)은 이론의 의상을 걸치는 整然한 말을 사용하면, 제대로 된 作品이 되는지 어떤지를 되물어서, 그 정연한 말의 가면을 벗긴다. 그것 (레알리즘)은 대중의 둘레를 넓히고, 예술의 진지성을 부활함으로써, 만민에게 소용되는 것이 되려고 소망한다.

레알리즘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은 流派의 반대말이다. 레알리즘의 流派 école réaliste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레알리즘이란 개성의 솔직하고도, 완전한 表出을 의미한다. 그것 (레알리즘)이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因習, 모방, 즉 모든 종류의 流派이다. 레알리스트(Réaliste)는 완전히 이웃 사람과 독립되어 있다. 레알리스트는 事物을 앞에 하고, 자기의 본성, 자기의 기질에 따라서 생기는 바의 감각을 표현한다. ……後略……

듀랑티의 이 레알리즘 定義는 당시 社會가 레알리즘에 대하여 지니고 있던 反感을 중화시키기 위한 美化意識인지는 몰라도 그 性格이 애매하다. 보다시피 일반적인 예술론이나 문학론에서 큰 距離가 있는 것 같지 않다.

레알리즘의 사조가 구체적으로 문예사상에 영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월 혁명²³⁾이후의 일로서 그것은 人間을 야비하고 저속한 측면으로부터 그리려는 意圖쪽에서 더 두드러졌다. 뒤에서 다시 論及하겠지만 이와 같은 理由로 해서 레알리즘은 많은 빈축을 샀고 여러차례의 소송사건을 초래하는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랑티의 레알리즘 定義는 그와 같은 現實性에 對한 主張이나 변명이 없다. 어쩌면 이와 같은 自己修正 理論이 레알리즘을 단순히 내츨리즘(自然主義)의 초기단계로 규정짓도록 만든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23) 1848년 2월, 共和派부르주와지, 소부르주와지, 푸로레타리아트들이 봉기하여, 루이 필립의 7월 王政을 무너뜨리고 共和政을 宣言하고 臨時정부를 세웠다.

듀랑티는 <레알리즘>의 定義를 쓴 같은 号에 <執筆의 方法에 관한 소묘>라는 글을 싣기도 하였는데 거기에선 또 이렇게 쓰고 있다.

레알리즘이란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환경이건, 時代이건 하는 것의 정확한, 완전한, 진지한 재현이다. 왜냐하면, 연구의 방향은 대중의 理性, 知的慾求, 興味에 의해서 옳은가 그렇지 못한가 결정되기 때문이며, 또 그 일에 의하여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야말로 明示해야 할 제일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内容으로 볼 때는 1850년대가 論難의 대상으로 삼았던 레알리즘의 특징은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지금은 상플뢰리의 글에서 살펴보자. 상플뢰리의 경우에는 그래도 얼마쯤 그 時代性과 레알리즘의 성격을 시인하는 것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당시 사정이 짐작될 것도 같다. 그는 1857년 6월에 출판한 저서 <레알리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요즘 주목을 받은 사람들 속에, 특별히 부르주아와 농민과의 두 개 계급을 연구한 것을 이유로, 이 두 가지를 소설속에서 그린 사람이 있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류계급이라든지, 우아성이라든지, 文明의 정교한 매력을 피한 것은 아니다.

論理的으로는(偶然은 종종 논리적이다), 감정이나, 行動이나, 말 씀씀이가 上流社會보다 露骨의 으로 드러나는 下層階級을, 그리는 편이 처음엔 더 좋았다. 이런 까닭으로 新進의 作家는 미천한 身分의 사람들을 그렸던 것인데, 그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는 결과가 되었다.

이 글에 의하면 레알리즘이 下層社會를 그리기도 했지만 上流階級이나 또는 優雅性과 같은 것의 描寫表現을 기피한 것은 아니라는 論調이어서 앞의 듀랑티의 레알리즘 定義보다는 구체적이지만, 그래도 당시의 시대 世論에서 論難되던 비난의 표본에선 많이 벗어난 理論이다.

상플뢰리, 듀랑티의 이와 같은 後退氣運이 結局 뒤이어지는 졸라(Zola)의 自然主義 밑에서 색바래가며 그것과 동일시된 큰 理由로 판단된다. 더구나 이들 상플뢰리, 듀랑티 등 레알리스트로 꼽히는 作家들의 作品은 그 당시 사회에서 초래되었던 反響 관심과 인기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群小작가로 머무르며 오늘에 와서는 거의 잊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플뢰리, 듀랑티의 작품이 지니는 운명과 그들의 이론의 強度가 바로 오늘의 레알리즘의 위치의 크기를 결정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V. 寫實派그룹의 작품성격

時代와 思潮의 흐름을 보는 史家의 눈은 正確하고 예리해야만 될 줄 안다. 더구나 그것을 구체적이고 分類구정하는 方法과 判斷은 讀者의 눈에 充分히 납득될 수 있는 타당성을 지니므로써만 높이 評價되며 信賴를 줄 것이다.

우리가 이 글에서 문제삼은 두 사람의 文學史家는 이미 確固한 權威위에 서 있는 定評있는 著述家이다. 그러나 한 쪽은 레알리즘과 내추럴리즘을 區分하며 특히 레알리즘의 存在를 明白히 하였고, 또 다른 한 쪽은 레알리즘을 特記하지 않고 내추럴리즘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 史家の 論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Thibaudet는 年代別 世代別로 그룹의 흔적을 찾으려 좀 더 細部的이고 逸話(逸話) 중심적인 탐색을 시도 하였고, Lanson은 實證的인 基點集約의 評價方法을 채택하였다고 본다.

어찌 되었건 우리가 문제 삼는 年代가 1850년에서 1885년 혹은 1890년까지의 30 乃至 40년 사이의 기간이고 그 기간중에 활동한 작가들을 문제삼는 것이다. 단지 여기서 문제 밖으로 論外가 되는 作家는 위고(V. Hugo)와 같이 뚜렷한 浪漫티즘 작가와 양쪽 文學史에서 다 함께 自然主義로 규정된 졸라뿐이다.

그런데 이 기간 중의 작가군을 살펴볼 때, 우리는 비단 위고나 졸라만이 아니라 여타의 작가들, 예컨대 플로베르나 콩쿠우르제들, 또는 그 뒤 象徵主義 이전 세대들로 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색채를 짐작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레알리즘의 핵심은 Lanson, Tuffrau의 文學史에서 제외된 作家들에게서 추출(抽出)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들의 작품을 살펴보는 일도 한 방법일 것이다.

1) 앙리 뮈르제²⁴⁾

티보데는 뮈르제를 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얘기하기를 좋아하였고, 얘기한 것을 얘기한대로 쓰는 것을 좋아하였다. 물론 대단히 힘이 들었을 것이다. 그는 훌륭한 書記와 같이, 복사의 감각을 지녔고……」²⁵⁾ 「그것은 모든 登場人物이 實存하였다는 意味에서 寫實小說들(des livres réalistes)이다.」²⁶⁾

이 사람의 代表作 《Scènes de la vie de Bohème》(방랑생활의 情景)은 1849년에 발표된 그의 처녀작으로 그의 최고의 걸작이었다. 이 소설은 그가 화가를 지망하던 貧窮時節에 겪은 일로, 고생을 함께 한 예술가 지망생들이며 문학청년들의 생활을 초연한 탈속적인 모습으로 추억하며 그린 내용이다. 가령 너무나 가난해서 가구 하나 없는 방에, 그림으로 그린 가구들을 장식해 놓고 사는 모습이며, 건반이 모자라는 피아노를 두드리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음악가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 소설 내용은 앞에서 티보데에 의하여 증명된대로 <모든 登場人物이 實在하였다.>

24) Henri Murger : 관련작가군 一覽참조.

25) Albert Thibaudet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p. 363.

26) 앞의 책 p. 363~364.

2) 상플뢰리

역시 티보테의 책에서 상플뢰리에 관한 論評을 몇 줄만 옮겨보기로 한다. 「그 登場人物은 랑(Laon) 마을의 여러 가족들의 전해져 내려오는 추억이며, 공증인의 古文書며, 호적부에 남겨진 實在人物과 완전히 조회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그는 한 때 뮤르제와 함께 同居하며 많은 文人들과 그리고 화가들을 사귀었다. 그리고 레알리즘은 동의 투쟁을 유도하는 中心人物이 되었다. 그는 「본대로를 정확히 그리는 <誠實한 文學>이라는 主張을 내세우며 뮤르제의 <방랑생활의 情景>의 人物과 똑같은 登場人物을 취급한 自傳的인 소설을 썼다. 《Les Aventures de Mademoiselle Mariette》(마리엠티嬢의 모험)이다.

또한 Flaubert(플로베르)의 《보바리夫人》과 경쟁적인 위치에 있었던 소설 《Les Bourgeois de Molinchart》(몰랭샤르의 市民들)는 당시 10만부가 팔리는 인기를 차지했지만 그 반향은 상당히 어수선 하였다. 이 소설의 寫實性은 시골마을 市民들의 私生活이 그대로 노출되므로써 (그 속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괴짜(특이한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고 있었고, 장황한 시골풍의 간통사건으로 종결된다.²⁸⁾) 市民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그 결과 상플뢰리로 하여금 랑 마을²⁹⁾에 머물 수 없게 한다. 엔느(Aisne) 州의 주지사과 재판소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다. 市民들의 폭행에 대한 위협을 받은 것이다.

플로베르의 《보바리 夫人》은 풍기문란죄로 소송고발을 받았지만 그 보다 앞서 상플뢰리의 소설은 市民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돌던집>을 받았다. 레알리즘이 지녔던 한 특징이었다.

3) 듀랑티

듀랑티를 評하면서 티보테는 뮤르제나, 상플뢰리와 비교하여 「文學者の 知的, 理論的인 레알리즘을 대표한다.³⁰⁾」고 하였다. 앞에서 이미 論及한 바와 같이 그는 雜誌 《Le Réalisme》을 創刊하였고, 그 지면을 통하여 Roman派의 巨匠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플로베르를, 부르조와의인 變形시도자라고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는 6편의 소설을 썼는데 그 중 《Le Malheur d'Henriette Gérard》(앙리엠티 제라르의 不幸)과 《La Cause du beau Guillaume》(美男기 事件)이 가장 호평을 받은 作品으로 특히 앞의 작품은 감동을 주는 것이었다. 이 작품은 지방생활을 그린 소설이며 「발작(Balzac)이래로 가장 관찰이 예리하고, 명석한 작품」으로 꼽는다. 티보테는 그의 作品을 스탕달(Stendhal)풍의 필치라고 하였고, 그가 스탕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듀랑티의 레알리즘 사상의 특징은 소설

27) 앞의 책 p. 364.

28) 앞의 책 p. 365.

29) Laon, L'Aisne주의 한 마을(군정도)

30) 앞의 책 p. 365.

에서 보다는 평론적인 이론에서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주목되는 일은 열두살 年上의 샹플뢰리를 좋아하고 그와 함께 레알리즘 운동에 적극 가담했던 일이며 또는 젊은 放浪藝術家(보엠)들과 교분을 맺었던 일, 화가 쿠르베의 아트리에를 드나들며 레알리즘의 풍조를 고취했던 일이다.

VI. 플로베르, 공쿠르의 성향

앞에서 잠깐 비친 바 있지만, 같은 시대에 살면서 또 뒤의 文學史家들이 똑같이 레알리즘文學의 作家로 區分하는 作家이면서 異質的인 作家群을 우리는 본다. 즉 앞에서 살펴 본 듀랑티들 적극적인 레알리즘派들과 당시 社會환경속에선 스스로 레알리즘派가 아님을 주장하던 플로베르와 공쿠르형제와 같은 또다른 그룹이다. 이들은 서로간에 융합교류함이 없이 다분히 反目상태에 있으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듀랑티의 《보바리夫人》 비평의 내용 중에서 한 대목을 옮겨본다.

구스타브 플로베르의 소설 《보바리夫人》은, 묘사에 대한 집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소설은 線畫의 텍상을 상기시키는 것의 하나이다. 그만큼 이 소설은 세밀하고 콤파스로 재어서 꾸며져 있다. 計算되고, 연구되고, 직각으로 모가 나고, 결정적으로 무미건조하며 살벌하다. 이것을 쓰는데 수많은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실제로 하나하나의 細部가 계산되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어느 길이나 어느 집이나, 어느 방이나 어느 개울이나 어느 풀포기나 남김없이 그려진다. 어느 人物이나 무대에 登場함에 있어서, 미리 무익한 흥미없는 많은 일에 관하여 한바탕 얘기하고나서 등장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 사람의 지식의 정도를 그려 독자에게 알리는데 소용될 뿐이다. 이처럼 집요한 묘사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 이 소설은 거의 언제나 몸짓에 의해서 진행된다. 두줄, 세줄, 그리고도 그 이상을 드러서 묘사되지 않는 따위, 손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은, 하나도 없다. 이 소설에는 감동도, 감정도, 생명도 없다……³¹⁾

이 評文에 의하면 플로베르의 描寫솜씨가 너무나 자세하고 지루하다는 투다. 그러나 後世 史家에 의해서 소설 《보바리夫人》이 古典으로 꼽히게 된 주요한 원인은 바로 이 철저한 그리고 정확한 描寫때문이었다.

우리는 일찍이 프로베르가 《La Tentation de saint Antoine》(聖 앙트완느의 유혹)을 써서 친구들 앞에서 낭독한 결과 그의 「藝術的인 良心(sa conscience artistique)」이었던 마음의 벗 부이에(Bouilhet)³²⁾

31) 1857년 3월 15일부 <레알리즘>紙에 실린 評文

32) Bouilhet, Louis (1822~69) 詩人, 劇作家

Flaubert의 文學的인 上담역이 되었던 평생의 벗, Flaubert는 그가 죽었을 때 「創作의 目標을 잃었다」고 하였다.

의 충고로 그 책의 출판을 포기한 사실을 안다. 그리고 뒤이어 《Madame Bovary》의 題材를 택하도록 촉구시킨 사실도 안다. 그 題材라고 하는 것은 당시 루앙市에서 소문이 자자하던 事件으로 루앙市 東쪽 15Km지점의 리(Ry)에서 의사 개업을 하고 있는 위젠느 들라마르라는 사람의 처가 不貞한 짓을 하다가 음독자살을 한 사건이었다.

부이에는 플로베르의 소설 《성 안트완느의 유혹》에 나타난 너무나도 敝情적이고 主觀적인 경향을 바로잡아보려 한 것이다. 그 후 프로베르는 4년반의 세월을 바쳐서 《Madame Bovary》를 썼다.

그러나 티보데는 이 《보바리 夫人》에 앞서 쓴 또 하나의 소설 《L'Éducation sentimentale》(感情教育)에 더 큰 레알리즘의 要素를 인정하고 있다. 《감정교육》도 《성 안트완느의 유혹》과 마찬가지로 未發表되고 속에서 發見된 初期作品과 뒤에 修正改作된 後期作品이 있었는데, 두 作品이 모두 다 興味面에서는 初期作品을 낮게 치고 있다.

특히 티보데는 《感情教育》을 《보바리夫人》보다도 上位에 놓고, 더구나 레알리즘의 측면에서 評價할 때 이 作品을 레알리즘의 眞髓에 다다른 것이라 하고 있다. —C'est le livre qui, mieux encore que Madame Bovary, exigeait le génie du réalisme.—³³⁾

앞의 《성 안트완느의 유혹》의 원고읽기 때, 함께 동석하여 그것을 評하기도 하였던 친구 막심 듀 캉(Maxime Du Camp)의 《文學的 回想》³⁴⁾에 보면 《感情教育》에 登場하는 人物들은 모두 다 實在한 人物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로 하여 플로베르를 레알리즘의 작가로 꼽는 것일까.

티보데는 이 작품을 評하면서 「화가적인 플로베르는 화가의 아트리에에 모이는 그룹들을 가지고, 한 무리의 시대적인 화가를 그렸다. 그 시대란 1848년에 20歲로부터 30歲의 그룹의 시대이고, 혁명과 쿠데타에 의해서 파산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시대이다.³⁵⁾」라고 하였다.

플로베르와 함께 브르쥬아적인 레알리스트로 지목되던 공쿠르형제들 역시 샹플뢰리 일파들과는 성격상 많이 달랐으면서도 티보데에 의해서 레알리즘의 작가로 꼽히는 이유는 그들의 《日記》³⁶⁾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들 공쿠르형제는 1851년 12월 2일부터 시작하는 이 일기를 무려 45년간이나 계속 기록했으며 그들의 소설은 대부분 이 일기에서 가꾸어진 것이었다고 본다. (Or les romans ont poussé sur le Journal, ...)

33) Thibaudet, 같은 책 p. 340~341.

34) Souvenirs littéraires (1882~83) 2卷 속에는 특히 Flaubert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 그것은 Flaubert에 관한 研究資料로 貴重함.

35) Thibaudet, 같은 책 p. 341.

36) Journal des Goncourt (9 vol, 1887~96). Mémoires de la vie littéraire라는 副題가 설명하듯이 Goncourt 兄弟의 1851年으로부터 1895年까지의 約 45年間에 걸친 文學生活의 記錄이다.

그들은 이 日記로써 자기네들의 시대의 年代記를 이룩하려 하였고, 日記의 記錄으로부터 여러 편의 記錄소설을 제작하였다. 「이것들 소설도 또한 모두다 實話로써 만들어진 것이었다.」

티보데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뮤르제나 상플뢰리와 마찬가지로, 공쿠르들에게 있어서도 寫實小說이란, 小說화된 現實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었다.(Comme chez Murger et Champfleury le roman réaliste des Goncourt pourrait aussi bien s'appeler la réalité romancée.)」³⁷⁾

티보데는 이처럼 공쿠르兄弟의 소설의 레알리즘을 「小說화된 現實」과 「記錄小說」적인 특성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또 많은 評者들은 공쿠르들에게서 「激情的이고, 神經質의이고, 病的으로 인상을 받기 쉬운 人間이라」는 점과 그들의 作品의 「主人公의 성격이 예외적인 分裂에 허덕이는 異常性이 強하고, 적으나마 病理的인 傾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들을 自然主義者로 지목하고 있다. 즉 心理를 生理로 바꾸어 놓으려고 한 自然主義를 主張한 自然主義의 선구자로 꼽고 있다.

VII. 레알리즘의 氣流와 그 衰退

이 처럼 한 作家에 對해서도 評者에 따라서 그가 歸屬되는 主流의인 思潮의 근거를 달리 볼 수도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뚜렷한 色彩로 區分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文學이 讀者없이 存在할 수 없고 讀者를 意識하는 것은 어느 時代나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에 레알리즘의 時代는 그 時代대로의 氣流가 있었을 것이다. 비록 그 氣流가 鮮明하지 못하고 混濁했다손 치더라도 또는 큰 물줄기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엄연히 時代的인 흐름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그 氣流의 脈을 추려보기로 한다.

歷史의 눈을 빌어 時代的인 要因과 그 形成의 과정을 정리하자면 그것은, 첫째 로맨티즘文學에 對한 反動을 꼽을 수 있다. 로맨티즘의 文學은 그 정도야 어찌 되었건 現實로부터 遊離되는 傾向을 가지고서 그 특징을 삼았으며, 感傷主義에 빠져들고, 예술을 위한 예술에 젖어드는 분위기를 지녀왔다. 말하자면 레알리즘은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요 또 그런 것으로부터의 離脫이었다. 따라서 레알리즘이 作品對象으로 조명한 것은 주로 農民階級이었다. 그것은 上流階級의 사람들 보다도 下層社會의 사람들이 보다 생경하고 허식이 없는 모습으로 비쳤던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848年 2월에 7月王政을 전복시키고 民主的이고 社會的인 제 2 공화정을 세운 <2月혁명>의 여파,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 기계보급에 따른 産業의 發展, 交通의 발달 등 사회적인 변화가 여기에 가담된다. 또한 實驗的인 方法에 注目을 끄는 自然科學의 發展과 哲學의 主流를 이룬 實証主義 思想 등이 레알리즘의 눈을 뜨게 한 主要 배경환경이었다.

37) Thibaudet 앞의 책 p. 367.

이데아리즘에 빠져드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던 이와같은 反動세력은 文學에서 보다도 오히려 繪畫界에서 더 激烈하였고 이른바 觀察이니 描寫니 하는 말이 視覺의인 藝術에서 論議거리가 되며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같은 논쟁의 中心人物로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킨 것이 畫家 쿠르베였다. 쿠르베는 당시 社會에 스캔들을 야기시키며 많은 빈축을 샀다. 卽 종래의 慣行에서 벗어나 卑俗한 題材를 그대로 드러내서 그린다고 하는 侮蔑을 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非難에 맞서서 逆으로 레알리즘을 간판으로 내세우기까지 하였던 쿠르베를 옹호하고 레알리즘의 立場을 하나의 목소리로 主張한것이 샹플뢰리는 벌써부터 쿠르베의 畫室에 드나들며 동아리를 이루었고 뮤르제와 같은 젊은 文友들과 함께 <보헤미앙>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쿠르베들 레알리즘 화가들과 共同戰線을 펴므로써 어느새 레알리즘과의 대표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現實에 충실한 文學」을 부르짖으며 旣成文學을 攻擊했고 1856년에는 <La Gazette de Champfleury>³⁸⁾를 또 이듬해인 57년에는 <La Réalisme>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와 같이 新聞, 著書를 통하여 레알리즘의 주장을 내세우며 그것이 바로 「현대문명 속에서 사는 人間」을 표현하는 길이라 하였다.

샹플뢰리는 여러가지 형태 여러가지 부류의 환경 속에 사는 인간들을 세밀히 관찰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집 기록한 證言과 또한 갖가지 資料에 의한 자세하고도 꼼꼼한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이른바 文學的이라는 꾸밈을 섞지말고 기록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샹플뢰리는 레알리즘이라는 말이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명칭이라고도 하였고, 자기는 流派나 體系的인 이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하여 스스로의 立地를 희석(稀釋)하였다. 한창 시절에 인기를 끌었던 作品들도 거의 감동없는 밋밋한 나열 묘사식의 풍속자료적인 것이어서 후세에 남지 못하는 약점을 지녔다. 게다가 샹플뢰리의 晩年은 스스로의 주변에서 이미 그려낼 수 있는 것들 다 묘사한 고갈상태 때문인지 레알리즘이나 文學에서 멀어진 인상이었다.

샹플뢰리의 친구이자 제자격인 듀랑티의 경우에도, 한 때는 스승을 능가하는 레알리즘 투사로서 활약하였지만, 스승의 退陣이후로 졸라(Zola)와 친교를 맺으며 졸라의 예찬자로 바뀐다. 따라서 그는 레알리즘과 自然主義를 결합하는 역할을 하였고 마침내는 自然主義에 흡수된 셈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떠밀어 올려진 졸라는 그 줄기찬 創作意慾과 확고한 理論과 굵힐 줄 모르는 鬪志, 또는 精神力을 가지고 自他가 공인하는 自然主義 代表者가 되었다. 그는 <Les Rougon-Macquart>³⁹⁾ 全 20卷에 걸친 방대한 作品群과 <實驗小説論>⁴⁰⁾을 비롯한 當당한 理論書들을 가지고 한 世代의 社會史를

38) 1856년에 刊行하여 2号까지 내고 廢刊한 <샹플뢰리雜報>라고 할 수 있는 샹플뢰리의 個人新聞.

39) <루공·막카르 叢書>로 번역되는 全 20卷에 걸친 小説集. 졸라는 이 소설 <총서>를 1869년으로부터 1893년까지 집필 발표하며 科學主義에 立脚한 文學을 主張하였다.

40) <Le Roman expérimental> 졸라의 代表的인 自然主義小説論, 1880年刊.

그리는 學者的인 作家로 自負하였다.

랑송, 튀프로오의 文學史에서 지적인 自然主義定義는 너무나 간결하다. 따라서 이 책에선 이미 自然主義 범주안에 區分된 作家들 個人的 性향을 그 主義와 관련시켜서 分離하지 않고 있다. 그저 각기 作家들의 分野 장르를 批評說明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두 서너 줄로 그 특성을 살펴 보며 옮기기로 한다.

「浪漫主義的 理想에 대한 反動이 시작된다. 그것이 이른바 자연주의의 시대다.」—Une réaction contre l'idéal romantique commence : c'est la période dite naturaliste.—

그러나 역시 플로베르의 位置에 대해서는 재고하였던 흔적을 볼 수도 있다. 「규스타브 플로베르의 位置는 로맨티즘과 自然主義 中間에 있다. —Gustave Flaubert : Sa place entre le romantisme et le naturalisme.—라고 한 말이다.

랑송, 튀프로오의 文學史가 보는, 로맨티즘과 自然主義 中間의 位置는 어떤 것일까. 이 책에는 거기에 관한 細論이 없다. 다만 소설에 관한 의견이 몇마디 있을 뿐이다.

1850년으로부터 1890년에 걸쳐서 가장 優位에 있는 文藝장르는 소설이었다. 마치, 19세기 前半에 抒情詩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이 優位의 變移는, 그것만으로도, 文學의 새로운 方向을 제시하는 것이다. 定義한다면, 抒情은 《自我》의 표출이고, 소설은 《非我》의 표출이어야만 한다.

Le genre littéraire prédominant, entre 1850 et 1890, a été le roman comme, dans la première moitié du siècle, la poésie lyrique. Et ce déplacement de la supériorité est à lui seul le signe d'une nouvelle orientation littéraire : par définition, le lyrisme est l'expression du *moi*, et le roman doit être la représentation du *non-moi*⁴¹⁾.

結局 랑송, 튀프로오의 自然主義小説은 1850년에서 1890년 사이의 社會를 바탕으로 하고 噴出한 다양한 作家들의 作品을 총괄하는 지칭이며 《非我》의 표현이 主流를 이룬 風潮의 思想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自然主義와 레알리즘 사이의 區分은 前者가 보다 더 包括적인데 比하여 後者가 한층 地엽적이고. 기술적인 狹義의 특성을 지니는 差異로 판단한다. 레알리즘은 또한 1850年代 이전에도 이미 存在하여 온 일반화된 表現主義의 한 用語일 수 있었던 言語의 不明確성과 애매성 때문에 그 빛이 퇴색하는 理由도 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지적한대로 그것을 표방 주창한 作家들의 作品의 성가가 희미하기 때문에도 그 결과는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근자에 《反레알리즘》에 관해서 論한 글을 보고 레알리즘에 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그것은 알랭 로브 그리에⁴²⁾의 作品論을 유도하기 위한 테마이었는데, 소위 《누보 로망》⁴³⁾의

41) G. Lanson-P. Tuffrau, *Manual Illustré d'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p. 677.

42) Alain Robbe-Grillet (1922~) 新小説의 旗手로 꼽히는 現役作家

43) Nouveau Roman : 新小説로 번역되는 現代小説의 한 流派, 처음엔 앙티로망으로 불렸음.

작품분석과 그 소설구조의 연구였다.

레알리즘의 문제는 넓은 의미로나 좁은 의미(19세기 후반사상)로나 소설문학의 표현수단으로, 그것이 어떻게 作家에게서 쓰여지느냐는 현실문제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 문학이 비롯되면서 있어 온 現實(레알리테, *réalité*)을, 보다 가깝고 절실하게 現實化하자는 레알리즘을 거쳐 앙티(反)레알리즘의 단계까지 왔다. 그 다음 단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VIII. 結 論

문학사를 공부하며 우리는, 종전에 아무 생각없이 무의식중에 읽어 넘어간 많은 作品들의 성격을 돌이켜 보게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읽어 넘어간 作品들의 分類區分과 時代相에 대해서 그 意味性과 思想性을 음미 판단해 본다. 때로는 作品과 作家를 묶어서 어떤 潮流에 맞추어 보기도 하고 思潮의 變化속에서 그 作品이 탄생한 동기도 살펴 본다.

이와 같은 考察은 文學作品의 體系化, 또는 作家들의 活動경위를 보다 鮮明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 作品이나 作家의 歷史的인 存在價値와 時代背景하고의 상관성까지도 명백히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추적 속에서 특히 <무슨 무슨 主義>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쏟는다. 그것은 어떤 作家와 作品들을 윤색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制限된 틀속에 가두기도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考察하여 온 <레알리즘>은 그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의 探究上 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온 명칭이었다. 言語的인 概念과 時代的인 概念의 混同에서 오는 모호성이 그것이었다.

생각컨대 <~isme>하는 主義 思想이나 流派概念은 特定時代의 그 世態現象에서 그것을 밝혀야 할 것이로되, 그 時代를 보는 歷史的인 時代區分이나, 또는 어떤 通念하고의 상관성도 역시 탐구되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時代에 출현한 하나의 文學運動이라든지 또는 그 경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하여 지칭하는 명칭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것은 宣言이나 主張일 수도 있고 때로는 流派와 流派사이에서 주고 받은 論爭의 主題나 그 中心思想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宣言이 存在하고 主張이 있어도 또 論爭의 主題가 있어도 그것이 存在하는 또는 存在되는 理由가 充分해야 될 것이다. 동시에 時代的인 代表性이 확실하고 持續性이 뚜렷해야 될 것이다.

레알리즘의 意味는 그와 같은 理由로 해서 多分히 問題거리가 되는 主題였다. 文學史의 主題로 또는 思想史의 主題로 더구나 觀點의 差異가 存在하는 두 권의 權威있는 文學史의 內容을 對象으로 이 問題를 追究해 본 것은 興味있는 일이었다.

레알리즘의 事例는 우리가 文學을 보고 文學史를 공부하는 研究의 좋은 본보기로서 再三 究明될 素地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

IX. 관련 作家 · 作品 一覽表

Henri Monnier (1805-77)

Grandeur et Décadence de M. Joseph Prudhomme(1852)

Mémoires de Joseph Prudhomme (1857)

Henri Murger (1822-61)

Scènes de la vie de Bohème (1845-49)

Champfleury (1821-89)

Les Aventures de Mademoiselle Mariette (1853)

Les Bourgeois de Molinchart (1855)

Le Réalisme (1857) : 評論

Monsieur de Boisdyver (1856)

Les Souffrances du Professeur Delteil (1857)

La Succession Le Camus (1857)

Louis Edmond Duranty (1833-80)

Le Malheur d'Henriette Gerard (1860)

La Cause du beau Guillaume (1862)

Flaubert (1821-1880)

Madame Bovary (1857)

La Tentation de saint Antoine (1874)

L'Éducation sentimentale (1869)

Trois Contes (1877)

Bouvard et pécuchet (1881)

Correspondance (1926-53) 13 vol

Goncourt, Edmont Huot de (1822-1896)

Goncourt, Jules Huot de (1830-1870)

Histoire de Marie-Antoinette (1858)

Charles Demailly (1860)

Manette Salement (1867)

Renée Mauperin (1864)
 Germinie Lacerteau (1865)
 Ls Fille Élisà (1877)···兄단독의 작품
 Les Frères Zemganno (1879) ㄱ
 Journal des Goncourt (9 vol, 1887-1896)

Emile Zola (1840-1902)

Thérèse Raquin (1867)
 Les Rougon-Macquart (1871-1893)
 La fortune des Rougon (1871)
 La curée (1871)
 Le ventre de Paris (1873)
 La conquête de Plassans (1874)
 La faute de l'abbé Mouret (1875)
 Son Excellence Eugène Rougon (1876)
 L'assommoir (1877)
 Une page d'amour (1877)
 Nand (1880)
 Pot-Bouille (1882)
 Au Bonheur des Dames (1883)
 La joie de vivre (1884)
 Germinal (1885)
 L'œuvre (1886)
 La terre (1887)
 Le rêve (1888)
 La bête humaine (1890)
 L'argent (1891)
 La débâcle (1892)
 Le docteur Pascal (1893)
 Le Roman expérimental (1880) : 理論書.

Guy de Maupassant (1850-1893)

Une vie (1883)

Bel ami (1885)

Boule de suif (1880)

Les Soirées de Medan (1880)

Zola : ·〈L'Attaque du moulin〉

Maupassant : ·〈Boule de suif〉

Joris-Karl Husmans (1848–1907) : ·〈Sac au dos〉

Henry Céard (1851–1924) : ·〈La Saignée〉

Léon Hénique (1851–1935) : ·〈L'Affaire du Grand 7〉

Paul Alexis (1847–1901) : ·〈Après la bataille〉

Daudet, Alphonse (1840–1897)

Fromont jeune et Risler aîné (1874)

Aventures prodigieuses de Tartarin de Tarascon (1872)

X. 참 고 문 헌

1. Textes

- Albert Thibaudet :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De 1789 À nos jours STOCK
- G. Lanson : Histoire de la Litterature française HACHETTE
Paul Tuffrau
- G. Lanson : Manuel illustré d'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Des origines À l'époque contemporaine HACHETTE
P. Tuffrau raine

2. 작 품

※관련 作家·作品一覽表 참조.

3. 기 타

- Pierre Cogy : La Naturalisme—que sais-je ? n°604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Du Camp, maxime : Souvenirs littéraires, Tome I, Hachette, 1882, Tome II 1883.
- Champfleury : Gazette de Champfleury 1er decembre 1856
- Champfleury : Le Réalisme Michel Lévy, 1857
- C. Beuchat : Histoire de Naturalisme français Corréa 1949
- 山川 篤 : 프랑스·레알리즘研究 駿河台出版社
- 中谷 拓士 : 反레알리즘論 創元社
- 吳光 洙著 : 쿠르베 (세계의 미술 24) 瑞文堂
- H·W 쾨른 著 : 美術의 歷史 三者出版社
金潤洙外譯